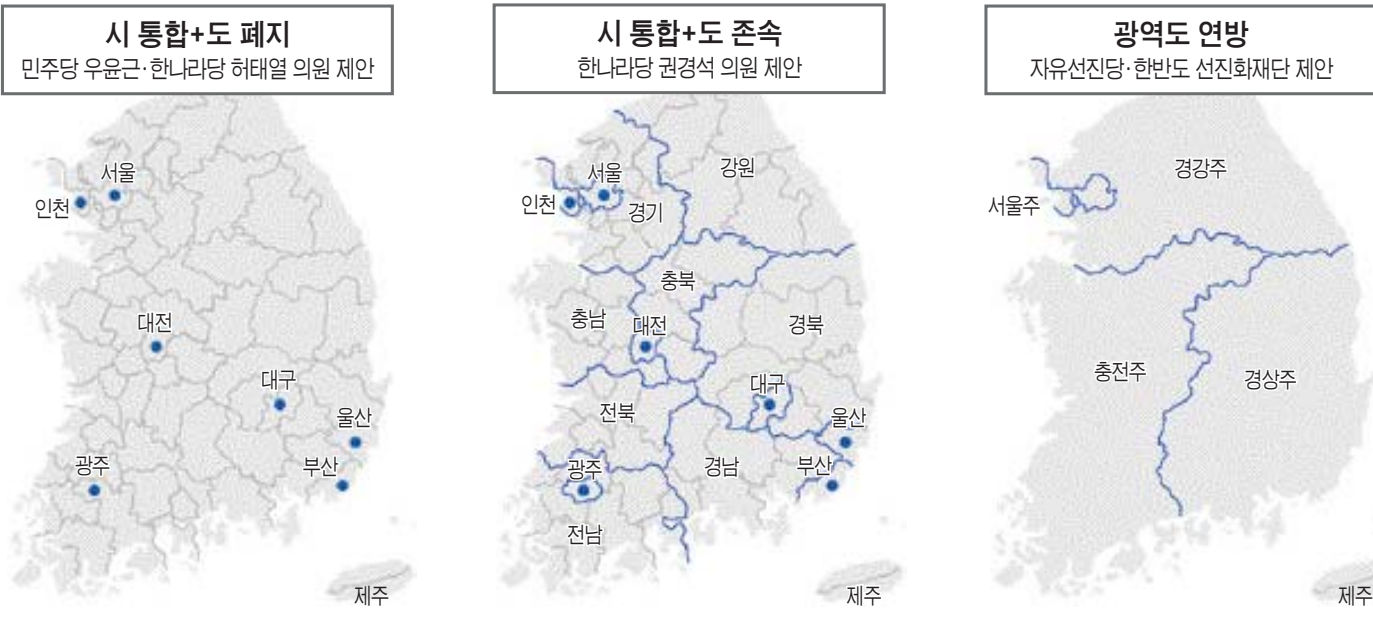


■ 행정구역 개편안 3대 방안



# 전국 70~80개市 재편안 유력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차원의 중립적 자문단을 구성해 정치권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작업을 뒷받침할 것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이달근 행안부장관 개편작업 본격화 시사 정치권 “100년된 현 체제는 비효율” 공감 선거구 조정 등 난관...당장 실현은 힘들 듯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행정체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 가면, 행안부에서는 필요한 자료와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어 “정부 전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면, 중립적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과 정부에서 가능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개편안=정치권은 100년된 농경 시대에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각종 행정 비효율과 낭비,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현재의 시·도와 시·군·구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인구 30만~50만명 정도의 70~80개 광역·통합시 형태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서울 특별시와 광역 시·도 체제를 유지하되 전국 230여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개편 필요성과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속한 개편논의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원연찬회에서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非)자치단체 등 3~4개 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기로 한 바 있다. 현재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자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현재 도를 폐지하고 5~7개의 광역시와 70~80개 통합 시·군·구 체제로 바꾸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전국을 5~7개의 광역도로 나누고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서울주’, 경기도와 강원권을 ‘경강주’, 충청과

호남권을 ‘충전주’, 영남을 ‘경상주’로 나누는 안이다.

◇현실화 가능성=그동안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꾸준히 논의돼왔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장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된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정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치 일정상 2월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4월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특위를 돌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며 정부에 추진단을 두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김추기경 관에 들자 하늘도 울었다

## 마지막 모습 공개후 입관...광주·전남 성당들 조문객 줄이어

고(故) 김수환 추기경 입관식이 열린 19일에는 하늘도 서글퍼 울었다. 선종 나흘째인 이날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관식이 끝난 이후에도 김 추기경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에 김 추기경의 입관식이 열리는 동안 명동성당 외부에는 비가 그치지 않아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애절하게 했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장례위원회는 이날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대신 하는 특사로 임명된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오후 5시부터 약 20분간 공개적인 입관 절차를 진행했다. 명동성

당 본관 대성전 앞의 유리관에 임시로 안치됐던 김수환 추기경의 시신은 이날 마지막 모습 공개된 후 삼나무관에 안치됐다.

입관 후에는 잠시 멈춰섰던 일반인들의 조문도 재개됐다. 서울대교구측은 현재까지 잠정 집계한 전체 조문객은 34만 1천6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각 본당에서도 김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 미사와 기도가 이어졌다.

주교와 임동성당은 지난 18일 김 추기경을 애도하는 현수막을 내 건데 이어 분향소를 설치해 신자들의 조문을 받고 있으며, 각 본당에서도

추모미사를 올리고 있다. 주교와 임동성당의 경우 19일 하루만 1천여 명의 신자와 시민이 분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는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김 추기경을 기리며 5·18 가족의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18일 이명자 광주시의원(당시 사형수였던 정동년씨의 부인)과 안성례 오월어머니회 회장 등을 조문단 대표로 보냈다.

한편 최창무대주교는 21일 낮 12시 주교와 임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입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추기경 자서전·가톨릭 서적 등 곳곳에 ‘광주 사랑’

### 5·18 당시 윤대주교에 편지·수표 보내

살아생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광주의 비극’이라고 회고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진정으로 광주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했다는 사실이 김추기경의 자서전과 가톨릭서적, 5·18 연구서 등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광주시민들을 숙연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공동발간한 김추기경의 자서전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에 따르면 김추기경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사태 수습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소장을 직접 만나 무력진압을 막아보려 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나 사태 수습을 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89년에 천주교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 ‘저항과 명상-윤공회 대주교와 사제들의 오월행정 체험담’에는 김추기경이 1980년 5월 당시 이억민 군중신부를 통해 전두환 군부의 무력진압에 대한 분노와 평화적 사태수습을 희망하는 편지를 당시 윤공회 광주대교구장에게 전달했음이 당시로는 큰돈인 1천만원도 동봉했던 사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편지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김추기경은 자서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했다. 윤대주교님과 군중종교정명조 신부가 애를 많이 쓰셨다. 사흘만에 남편의 감회와 석방 소식을 들은 부인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오던 날 저녁, 명동성당에서 마련해준 광주행 버스에 오르던 부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국 무안공항 무안공항공정국 직항!!!  
 \* 공항공정국 무안공항 무안공항공정국 직항!!!  
 \* 공항공정국 무안공항 무안공항공정국 직항!!!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光州MBC문화탐방 光州/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